

# 개혁주의 교회 예배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장로교회 예배의식의 갱신에 관한 연구

이 성 재

## 1. 들어가는 말

칼뱅주의(Calvinism)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종교개혁 운동으로서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었다면, 청교도주의(Puritanism)는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서의 종교개혁 운동이었다.<sup>1)</sup>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이 땅 위에 존재하려면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 Semper Reformanda)가 되어야 한다<sup>2)</sup>는 것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이념이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개

1) James Hastings Nichols ed., *The Mercersburg Theology*(Oxford: Oxford Univ. Press, 1966), p.135.

2) Colin W. Williams, 「교회」이계준 역,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3), p. 150.

혁은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개혁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었고, 따라서 개혁의 가시적 현상은 예배 갱신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다.<sup>3)</sup>

그러나 한국의 개회파, 장로파 교회는 서구의 개혁주의로서의 예배 양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19세기 미국의 근본주의로서의 극단적인 비의식예배 형태를 받아들임으로써<sup>4)</sup> 본래적인 예배 의식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는 개혁주의 교회 예배의 근본적인 배경을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서 개발건하고, 또한 나아가서 한국 개회파, 장로파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확립하고, 예배 의식(儀式)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개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쓰게 된 것이다.

## 2. 개혁주의 교회 예배의 역사적 고찰

오늘날 개회파, 장로파 교회 전통을 논하자면 먼저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1536년 5월 21일과 1541년의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536년의 그 날은 제네바 시 의회가 칼뱅의 종교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받던 날이요, 1541년은 그가 4년 가량의 추방에서 해제되어 스트라스부르(Strassburg)에서 다시 제네바 교회 지도자로 재추대되어 와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해이기 때문이다.<sup>5)</sup>

3) 岸本羊一, 「北村宗次 編, キリスト教禮拝辭典」(東京:日本基督教團出版局, 1982), p.34.

4) 조성노, “강의 노트: 한국 교회와 개혁 신앙”(1991), p.4.

5) 박건택, “강의 노트: 칼뱅의 모험”(1991), p.13.

역사적으로 볼 때, 1536년은 종교개혁사상 매우 의의있는 해였다. ‘개신교의 사도 바울’인 칼뱅이 바젤에서 집필했던 「기독교 강요」(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가 나온 시기였고,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통된 조국’이 될 그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던 때이며, 영국에서는 수장령이 발표된 해였으니까 말이다.

한편 농민 전쟁이 끝난 뒤, 급진 세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베른(Bern)과 바젤(Basel) 지역이 1528년과 1592년에 걸쳐 차례로 개혁 대열에 들어왔으며, 마르부르거 회담(Marburger Religionsgespräch) 이후 루터파의 독자 노선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쾰링글러(Urlich Zwingli, 1484-1531)의 죽을 이레 흠어진 개혁파의 결속을 알리던 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1517년이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에 의한 종교개혁 신화의 출발점이었다면, 1536년은 장 칼뱅에 의한 종교개혁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러나 제네바에서의 칼뱅의 개혁운동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에 착수했으나 현실은 그에게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유감스럽게도 그곳에서의 개혁운동을 중도 포기, 스트라스부르로 떠나고 만다.

그러나 그 후, 제네바는 장 칼뱅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귀임을 희망하게 된다.

1541년, 그래서 칼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의 4년 가량의 추방 생활을 청산하고 제네바로 돌아와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니크한 개혁파 교회 형성을 실현시켜 나아가게 된다. 그는 곧 교회법규(Ordonnances Ecclesiastiques)를 제정하고 평의회(Consistoire)를

6) Ibid.

조직하여 교회의 숙정을 피하는 한편, 이상적인 기독교 도시를 실현하고자 생애 최후의 23년 간을 그곳에서 불태운다.”<sup>7)</sup>

그러므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적, 교회적 원천을 논하자면 1541년 이후의 제네바 교회에서 찾아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예배 양식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칼뱅은 그의 선배였던 가뮈 파렐(Guillaume Farel)이 1533년에 쾰빙글러의 예배 양식을 본보기로 해서 편찬했던 예배식문(禮拜式文, La Maniere et Fasson……, Neuchâtel, 1543)을 1536년 이래 제네바 교회 예배 양식으로 공용했던 것을 결연히 폐지하고, 1543년 새로운 예배식문을 작성하여 실시하게 된다.<sup>8)</sup>

이것이 개혁파, 장로파 교회 예배 양식의 모태로 공인된 ‘제네바 예배식문’이다.<sup>9)</sup> 이 식문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 예배의 전통적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한국 교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제네바 예배식문’이 칼뱅에 의해서 의적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당시 1천 5백여 년 동안 내려오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의식을 일체 거부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할 진분야에 있어서, 특히 예배 의식(禮拜儀式)의 개혁이란 오히려 혼돈의 예배 양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때, 칼뱅의 ‘제네바 예배식문’은 예배 개혁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식 문서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의식서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주로 쾰빙글러에 의

7) 許煜, 『世界哲學大辭典』(서울:成均館, 1977), p.12.

8) William D.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Oxford Univ. Press, 1936), p.74.

9) *Ibid.*, p.75.

해 형성되었던 ‘츄리히 예배 양식’과 부처(Bucer)에 의해 형성되었던 ‘스트라스부르 예배 양식’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sup>10)</sup>

### 가. 독일 루터교 예배 전통

루터는 개혁자들 중에 예배의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기를 가장 주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가 주장했던 예배 순서들이 사실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더 많았다는 사료(史料)<sup>11)</sup>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523년 루터가 ‘예식서’(Formula Missae)를 출간하고 새로운 예배 형태와 내용을 발표했을 때, 세 예전(禮典)의 출현을 기대했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장황한 로마 가톨릭 교회식 미사의 순서를 요약한 정도에 불과했고, 또 부분적으로 라틴어 사용을 허용한 특성을 보여 주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sup>12)</sup>

루터는 3년 후인 1526년, 급진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그의 추종자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개정된 예식서 ‘독일 미사’(Deutsche Messe)를 발간하였다.<sup>13)</sup>

이 예식서에서 보여 준 그의 예배 내용은 성경 봉독과 그 말씀에 의한 강론(Preach)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과 성만찬에 있어 신약적 형태와 진행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역력히 나타났다.

그리고 예배 진행에 있어 자국어 사용을 뚜렷이 했고, 새로운 영

10) William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p.73.

11) Karl Holl, *Concerning the Order of Public Worship*(Fortress Press, 1923), Vol. IV, p. 151.

12) *Ibid.*

13) W. Jung, *Liturgisches Wörterbuch*(Berlin, Verlag Merseburger, 1964), p.78.

가(Spiritual songs) 등도 자국어로 부르도록 함으로써 찬송가의 작사 작곡을 독려하는 공헌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 예전 순서에서는 성만찬을 때주일 이행할 것이 강조되었다.<sup>14)</sup>

더욱이 이 예식서의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면, 특별한 예배를 위하여는 라틴어 예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성직자의 복장이나 촛불, 제단, 성상들, 십자가의 사용 및 설치까지 그대로 허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sup>15)</sup>

그의 '독일 미사'에 실려진 예전의 형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말씀의 예전(Liturgy of the Word)

① 입당송(Introitus) : 독일어 찬송 ② 자비를 구하는 기도(Kyrie eleison) <9월 양식> ③ 영광송(Gloria in Excelsis) ④ 인사와 집도문(集禱文, Collect) ⑤ 사도서 낭독 ⑥ 그란두알(Grandualia) <독일 찬송> ⑦ 속창(續唱, Sequentia) <성탄절 및 성령강림절에> ⑧ 복음서 낭독 ⑨ 신앙고백(니케아 신조를 노래로) <이때 성만찬이 준비된다> ⑩ 강론

#### 성만찬 예전(Liturgy of upperroom)

⑪ 서사(序詞), 특별서사(Verba), 거룩송(Sanctus) ⑫ 성례전 말씀 ⑬ 주기도 ⑭ 평안의 축복(Pax) ⑮ 분병 분잔, 어린 양 송가(Agnus Dei) <분병 분잔 중 노래한다> ⑯ 감사의 기도 ⑰ 아론의 축복 기도<sup>16)</sup>

14) William D.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New York: Oxford Press, (1936), p.8.

15) W. Jung, p.81.

16) William Maxwell, pp.79-80.

#### 나. 쾰빙글리 예배 전통

홀트라이 쾰빙글리(Huldreich Zwingli)는 1519년 츠리히의 그로스 문스타 교회의 설교자로 청빙받아 가자 곧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연속 강해를 통하여 복음주의를 선전하고 교회 개혁에 착수하게 된다.<sup>17)</sup>

츠리히를 종교개혁적 측면에서 평정하고 난 쾰빙글리는 1523년 봄, '미사전문반박'(典文反駁: De Canone Missae Opicheistis)을 펴내어 독자적인 예배 양식을 분명히 하였다.<sup>18)</sup>

그러나 쾰빙글리의 이 예배 양식 역시 독자적이라고는 하나 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식 그 자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하였고, 더욱이 성경을 읽는 것과 강론은 여전히 라틴어 사용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만 종래의 성찬식문에 공로 회생이 시사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제로이 '성찬기도문'을 만들어 삼입한 정도였다.<sup>19)</sup> 그러나 쾰빙글리의 이 '성찬기도문'에는 그의 성찬 상징론이 표현되고 있었다.

1530년 그가 말부르크에서 루터와 대결했을 때, 제삼 인용했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의 구절이 이 기도문에도 인용되고 있었음을 본다.<sup>20)</sup>

쾰빙글리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영을 전달하는 "말씀"이었으며, 따라서 빵이나 포도주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해에 입각하여 그는 다시 1526년 "성찬식 규정 및

17) 岸本羊一, p.35.

18) W. D. Maxwell, p.18.

19) Ibid., p.19.

20) Ibid.

관태(Action oder bruch des nachtmals)를 발표하게 된다.<sup>21)</sup> 이로써 라틴어 식문은 폐지되고, 영적인 은혜를 방해하는 가시적이며 외형적인 예배와 음악을 단호히 배제하게 된다.<sup>22)</sup>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예배(가운)을 읽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리스도의 회생의 제현이나 성상 설치 및 사용 등을 극구 반대했으며, 오르크만을 비롯한 제반 악기의 사용이라든가 화답송, 또는 이를 대신하는 화중 찬송도 일체 제거하였다.<sup>23)</sup>

그는 예배의 기본 요소로서 성경 봉독과 기도와 죄의 고백 및 강론만을 내세우는 형식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찬을 갖지 않는 경우의 예배는 사실상 예배로서의 의식이나 형식을 갖추지 않는 지극히 비예전적(非禮典的) 모습을 취하였다.<sup>24)</sup>

그리고 그는 교회가 성찬식을 연 4회(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 후 성인 웨릭스 및 데그라 기념일=9월 11일) 지키는 것이 무방하다고 하였다.<sup>25)</sup> 이것은 말씀과 성례가 분리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서 신화적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예배사적으로 칼뱅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교도들의 뿌리깊은 관례가 된다.

쯔빙글리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말씀의 예전<sup>26)</sup>

① 봉헌(성물의 준비와 배열) ② 집도문 ③ 주기도(단, 말미의 영광송은 생략) ④ 서신서 ⑤ 강론(강론 시작 전에 성경 본문을 읽었던

21) 岸本羊一, p.35.

22) 정장복, 「예배학 개론」(서울:종로서적주식회사, 1987), p.104.

23) 김수학, 「개혁과 예배 신학」(대구:보문출판사, 1982), p.55.

24) Ibid.

25) 岸本羊一, 北村宗次, p.35.

26) 말씀의 예전에 있어 정규적인 그들의 예식 순서는 지극히 비형식화되어 있었으므로 맥스웰은 강론 다음부터 계속된 순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듯하다) ⑥ 복음서 ⑦ 사도신경 ⑧ 십계 ⑨ 죄의 고백과 용서의 기도

#### 다락방 예전

⑩ 교훈 ⑪ 성찬단의 정리 ⑫ 주기도 ⑬ 성찬의 말씀 ⑭ 분병 분잔 ⑮ 시편 교송 ⑯ 기도문 ⑰ 폐회

쥬리히 교회는 이 밖에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성경공동연구집회(Prophesying)를 열었다.<sup>27)</sup>

특히 쥬빙글리의 설교 예배 형태는 영국의 극단적 청교도들의 예배 형식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설교 예배 형태는 바젤에서는 예코람파디우스(Johannes Oekolampadius)에 의해서, 또 제네바에서는 파렐(Guillaume Farel)에 의해서 계승되면서 폭넓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sup>28)</sup>

파렐의 *La Maniere et Fasson*에 소개된 그의 설교 예배가 ①기도 ②주기도 ③성경 봉독과 강론 ④십계 ⑤죄의 고백과 사죄의 말씀 ⑥주기도 ⑦사도신경 ⑧축도의 순으로 짜여진 것을 볼 때, 그 원형이 쥬빙글리의 양식이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파렐은 성찬에 관해서는 쥬빙글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집례 회수나 집례 일에 관한 한 쥬빙글리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다. 스트라스부르 예배 진동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의 예배 진동의 기원은, 1524년 2월 16일, 그곳 성 로렌스 대성당 내 성 요한 채플에서 원래 도미니코

27) William D. Maxwell,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Book*(New York: Oliver and Boyd, 1931), p.95.

28) 岸本羊一, p.36.

회의 사제였던 리볼트 슈바르츠(Rheobald Schwarz, 1485년 생)에 의해 집계되었던 독일어 미사에서 비롯된다.<sup>29)</sup>

본래 스트라스부르는 루터의 영향이 절대적인 곳이었으나, 1530년 부처가 그 지역의 체임을 맡으면서부터 독자적인 개혁 노선을 걷는 도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용되었던 독일어 미사는 루터와 쾰빙글리의 중간적 성격을 띠게 되는 양상을 가져 왔다.<sup>30)</sup>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날의 미사는 종래의 미사와는 전혀 다르게 예배 전체가 명료한 발음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인 독일어로 집례함으로써 크나큰 선공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특성으로는 먼저 '미사'(Mass)라는 어휘 대신 '주님의 만찬'(Lord's Supper) 또는 '성찬'(Holy Table)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것과 '사제'(Priest) 혹은 '신부'(Holy Father)라는 표현 대신 '목사'(minister)라는 칭호를 예전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sup>31)</sup>

그 해 연말, 마르틴 부처(Martin Bucer)는 '개혁에 관한 성경적 근거와 이유'(Grund un ursach ausz gotlicher schrift d'newerungen....., 1524)를 써서 동료 목사들의 동의 서명을 첨부하여 스트라스부르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sup>32)</sup> 그 문서 제11장에는 복음주의 예배의 생생한 모습을 묘사하였고, 예배가 '오래되고 진실하며, 더욱이 영원'('das alt, recht und ewig')의 형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회복시켜

29) 岸本羊一, p.37.

30) 由木康, 「禮拜學概論」(東京:新教出版社, 1961), p.111.

31) W. D. Maxwell, pp.91-111 참조.

32) 岸本羊一, p.37.

33) Ibid., pp. 37-38.

야 한다고 했다.<sup>33)</sup>

첫째는, 말씀의 메시지가 갖는 '명료도와 간명한 표현'의 회복 둘째는, 형식 우선이 아닌 성령의 역사의 회복 셋째는, 성령의 역사에 응한 회중의 자유 활발한 응답의 회복 넷째는, 예배에서의 공동체적 성격의 회복 등이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1529년까지 복음주의 예배와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가 평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부처와 카펠토(Wolfgang Capito)의 개혁 정신에 입각한 쾰빙글리의 독일어 예배식문 개정 작업이 거듭되는 가운데, 1539년까지 15년 간 무려 18회의 개정판이 나왔고, 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스트라스부르의 예배 전통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의 강조는 쾰빙글리에 의하여 사라졌던 시편이나 찬송이 이 예배 가운데 복귀하게 되었고, 또 이 노래는 회중가(Chorale)가 아닌 독일어 운률시편가(Psalter)를 사용한 데서 개혁 사상이 뚜렷이 나타났다.<sup>34)</sup>

메시지의 명료도와 간결성은 니케아 신조를 대신하는 사도신경의 채용, 연속성경일과(連續聖經日課: lectio continua)의 채용, 강론의 중시에서도 나타난다.<sup>35)</sup>

또한 성찬 및 제단의 위치도 지금까지 벽면에 붙여 놓았던 것을 회중석 앞쪽 중앙으로 옮기고, 이를 식탁 혹은 강론대라 명명하였고, 목회자의 벽을 향한 집례도 벽과 식탁 사이에서 회중을 향해 서도록

34) Ilion T. Jones, 「복음적 예배의 이해」 정장복 역(서울: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pp. 161-162.

35) Ibid., p.162.

하였다.<sup>36)</sup> 이처럼 식탁과 강론대가 중앙에 위치하게 된 것은 성찬을 통한 만남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예배의 중심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sup>37)</sup>

한편, 성자 축일 등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성만찬을 위한 성직자의 특별한 복장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주일에 검정 가운을 입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성찬은 매주일 갖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는 대성당에서만 지킬 뿐, 그 밖의 지교회에서는 월 1 회 지키는 것이 이 때부터였다.<sup>38)</sup>

성찬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서도 언제나 예배의 전제로서 드러졌다.

이렇듯 스트라스부르 예배가 예배 발전에 끼친 가장 중추적인 공헌은 예전의 진행 모두를 회중이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이제껏 회중을 등 뒤로 하고 드러지던 예배에서 회중과 목사가 마주 보며 드리는 예배로 전환을 이룩한 것에 대하여 많은 개혁자들과 그 후대 학자들의 관심은 집중<sup>39)</sup>될 수밖에 없었다.

부처를 중심으로 한 스트라스부르 예배 전통은 훗날 칼뱅의 제네바 교회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가 1542년에 펴낸 바 있는 ‘초대교회의 예전의 내용을 연구한 예식서’<sup>40)</sup>에 나타난 예배의 형태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36) 岸本羊一, p.38.

37) Robert E. Weber, 「에베학」 김지찬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202.

38) Ilion T. Jones, p.162.

39) Ibid.

40) *The Form of Prayer and Manner of Ministering the Sacraments according to the Use of the Ancient Church.*

## 말씀의 예전

① 예전 준비 ② 영광송 ③ 죄의 고백 ④ 사죄의 선언 ⑤ 시편 교송 ⑥ 인사와 응답 ⑦ 임당송 ⑧ 자비를 구하는 기도 ⑨ 영광송 ⑩ 기도문 낭송 ⑪ 서신서 봉독 ⑫ 복음서 봉독 ⑬ 니케아 신조

## 성만찬 예전

⑭ 봉헌 / 성물의 배열 준비 / 교훈 ⑮ 인사와 서송(序誦-‘주를 우러러 불지어다’) ⑯ 성찬의 서문경(序文經) ⑰ 성송(聖誦-시 95편) ⑱ 손 씻음과 기도문 ⑲ 진문(典文) / 중보의 기도 / 생혈을 위한 기도 / 성찬의 말씀 / 회상 ⑳ 주님의 기도(음료를 첨가한 송영으로) ㉑ 성상폐(Pax : 독사와 성도들이 입을 맞추는) ㉒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대 ㉓ 성만찬 기도문 ㉔ 성도들의 교제 ㉕ 분병, 분간 및 참여 ㉖ 성찬 후 기도문 ㉗ 인사와 응답 ㉘ 강복 선언

## 라. 제네바 교회 예배 전통

진술한 바 있거니와 1541년 칼뱅이 제네바로 귀환하기까지 제네바에서는 파렐에 의해 전해 내려오던 쾰빙글리의 추리히 예배 양식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칼뱅이 제네바로 귀환할 때, 그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용하고 있던 예배 양식을 가지고 돌아와, 그것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제네바 교회 양식으로 사용하였다.<sup>41)</sup>

이것이 이른바 ‘제네바 예배식’<sup>42)</sup>이다. 그러므로 칼뱅이 예배 형

41) F. M. Segler, 「에베학 원론」 정진황 역(서울: 요단문화사, 1981), p. 58.

42) *La forme des Prières et chantz ecclésiastiques avec La Manière d'administrer Les sacraments et consacrer le mariage selon la coutume de Légise ancienne*, Geneva, 1542.

태에 대하여 보인 직접적인 관심은 그가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에 망명하여 그곳에서 부처의 도움으로 프랑스계 회중들을 목회하던 난민 교회 시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두 중심점을 강론과 성례전에 두고서 성경적 근거<sup>43)</sup>에 의한 새로운 예전(禮典)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간편한 예배 순서 속에서 초기 교회가 가졌던 내용을 살리는 예배를 마련하기를 원하였으며, 이 일을 위하여 진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독자적인 새로운 예배 형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에 입각한 역사성 속에서 그 중심을 찾아 조직하는 가운데 특히 부처가 사용하였던 스트라스부르 예배 양식을 거의 그대로 채용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예배의 부름, 죄의 고백, 강론, 성만찬, 시편가 등을 회복 내지는 보완시켰다. 즉 이것은 강론을 미사에 대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형식화된 미사를 성경적 예배의 본질 위에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회복함에 두었던 것이다.<sup>44)</sup>

그러나 그 실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칼뱅은 매주일 성만찬을 겸한 예배를 인도하려 했었지만 당시 시민 사회의 권력층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생을 통해서 매주일 정규적인 성만찬 예배를 규범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성취할 수가 없었고, 결국 스트라스부르와 마찬가지로 월 1회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성만찬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하여 매주일 거행할 것을 주장한 점은 그의 신학에 근거한 분명한 특성이기도 했다.<sup>45)</sup> 그는 그

43) 사 6:1-8; 행 2:42

44) 김수학, p.56.

45) Ilion T. Jones, p.165.

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주의 만찬은 모든 교회에서 매주일 정기적으로 베풀어져야 한다”<sup>46)</sup>고 강조했고, 1561년 제네바를 떠나면서도 이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자기 “후계자는 이 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거듭 천명하고 있다.<sup>47)</sup>

개혁파 교회가 그 개혁 정신의 신학에 있어서는 칼뱅의 정신을 주축으로 삼아 왔으나 예배의 실천에 있어서만은 쾰빙클러의 주장에 기울어져 버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칼뱅은 1539년 클라망 말로(Clement Marot)의 도움을 받아 시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자기 자신의 번역 시편과 함께 이를 모아 잠정적인 시편가<sup>48)</sup>를 출판하였고, 이듬해 봄에는 주일 예배식 문, 세례식문 및 제 기도문을 포함한 문집을 출판한 바가 있었다.

그가 1542년에 펴낸 바 있는 ‘초대 교회의 예전의 내용을 연구한 예식서’<sup>49)</sup>에 나타난 예배의 형태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말씀의 예전(The Liturgy of the Word)

① 예배에의 부름 ② 영광송 ③ 죄의 고백 ④ 용서에 대한 성구 ⑤ 용서의 선언 ⑥ 운물로 노래하는 시편송 혹은 십계의 전반부(각 계명마다 “주어 불쌍히 여기소서”(Kyrie)가 반복됨) ⑦ 영광송(경우에 따라 생략) ⑧ 성경 말씀 ⑨ 강론

### 성만찬의 예전(The Liturgy of the Upper-Room)

⑩ 구제를 위한 연보 ⑪ 중보의 기도 ⑫ 주님의 기도(해설을 첨가

46) 이종성, p.152.

47) 岸本羊一, p.39.

48) *Aulcuns Pseaumes et Cantiques mys en Chant*, A Strasburg, 1539.49) *The Form of Prayer and Manner of Ministering the Sacraments according to the Use of the Ancient Church*(W. D. Maxwell,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Book*, pp. 114-115).



한) ⑬ 성물의 준비 ⑭ 사도신경(노래로) ⑮ 성찬 기도 ⑯ 성만찬을 위한 말씀 ⑰ 성만찬을 위한 말씀 증거 ⑱ 성찬에로의 초청 ⑲ 분병 분잔 ⑳ 성만찬 참여 ㉑ 성찬 후 기도문 ㉒ 시므온의 찬미(Maintenant Seigneur Dieu. 눅 2:29-32) ㉓ 아론적 축복 기도

성찬식이 없을 때에는 ① 중보의 기도 후에 ② 주님의 기도(베로는 긴 파라프레이즈) ③ 사도신경 ④ 시편가 ⑤ 아론적 축복 기도의 순서로 마친다.

다만 이 식순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가가 예배에서 많이 불리워지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제네바 교회 예배를 목격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수도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제네바 교회 예배당은 시중 회중 시편가로 가득했다<sup>50)</sup>고 한다.

제네바 교회 예배 양식은 스위스, 프랑스를 거쳐 스코트란드와 화란 교회로 전해졌다.

#### 마. 스코트란드 예배 전통

영국의 교회가 정치적인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벌인 종교 개혁은 오랫동안 대단한 흥미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를 형성시켜 준 스코트란드의 종교개혁은 어느 지역보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결실을 맺었으며, 복음의 바른 이해와 개혁의 참 정신을 뚜렷이 나타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코트란드 교회는 칼뱅의 개혁주의적 교회 정치 체제를 수용하지 않고 장로교(Presbyterian Church) 형태를 취하였다. 이는 그들이 제네바를 칼뱅에게 신세는 족으나 완전히 추종하지 않

50) 原惠, 「讚美歌: 其の歴史と背景」(東京: 日本基督教團出版局, 1980), p.116.

51) Kenneth S. Latourette, 「기독교사」 Vol. II, 윤두혁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p.401.

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51)</sup>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존 녹스(John Knox, 1504-1572)이다.

존 녹스는 개혁의 과정에서 특히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 '예식서'의 사용에 관한 그의 반대 주장 때문에 제네바로 추방당했었다.<sup>52)</sup>

그러다가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매리 여왕(Queen Mary)의 박해를 피하여 제네바에 망명 중이던 그는 윌리엄 위팅검(William Whittingham)과 함께 이 제네바 교회 예배 양식을 스코트란드로 가져가 이를 바탕으로 통칭 '녹스 예배식문'이라 불리우는 '스코트란드 교회 공동 예배식순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만든다.<sup>53)</sup>

이 예식서는 잉글랜드(England)의 청교도들이 사용하게 되었고, 훗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근간이 된다.<sup>54)</sup>

이 예식서는 칼뱅의 예배 형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다만 칼뱅이 사용했던 예배의 말씀 대신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점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경의(敬畏)와 감사를 더 첨가하도록 한 것 등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다.<sup>55)</sup> 그러나 그는 이 가운데서 세례 때의 대부모(代父母, godparents) 제도, 외경으로부터의 성경일과 사용, 병자에게 베푸는 성만찬, 교회 밖에서의 개별적 세례, 그리고 결혼 반지의 사용 등을 금하는 분명한 조항들을 밝히고 있다.<sup>56)</sup>

52) Ibid., p.403.

53) 이 때 칼뱅의 예식서는 영어로 *The Form of Prayer*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그 후에 이 책은 *The Book of Common Prayer*라고 하여 1552년 존 녹스에 의하여 재편집되었다.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Worship in the Church of Scotland*(Oxford Univ. Press, 1955), p.89.

54) Ibid., pp.103-105.

55) 정장복, 「예배학개론」 p.110.

56) Ilon Jones,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New York: Abingdon Press, 1953), p.131.

이 예식서는 80여 년 간 스코트랜드 교회의 예배 속에 정착되었다.

그러나 영국 국왕은 영국 국교회와 별개의 노선을 걸어가는 이들의 예배 행위에 불만을 느끼고, 국교회와 일치된 예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찰스 1세 때에는 스코트랜드 교회가 심한 탄압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분쟁의 불씨로 확산하게 된다.<sup>57)</sup> 결국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에 모여 스코트랜드 교회의 독자적 신앙과 예배 형태와 내용을 인정하게 된 것이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The Westminster Directory for the Publique Worship of God, 1644)의 탄생이며, 동시에 장로 교회 신조와 신앙 고백 및 정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1645년 스코트랜드 장로회 총회가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 장로교의 소중한 교리 및 예배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sup>58)</sup>

### 말씀의 예전

① 예배어의 부름 ② 예배 기도(경외, 찬양, 성령의 임재를 기원

57) W. D. Maxwell, *A History of Worship in the Church of Scotland*(Oxford: Oxford Univ. Press, 1955), p.284.

58) 종교개혁 후 얼마 동안의 프로테스탄트·스콜라 주의 시대를 지나 프로테스탄트 제교회는 예배 의식을 경시하는 경향을 맞는다. 경건주의, 계몽주의 영향으로 신앙의 개인주의화, 체험주의가 진행되면서 공동체 성격이 상실된 결과를 가져왔고, 실상가상으로 예배의 본질적 핵심보다는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운동으로서의 청교도주의의 지나친 설교 중심 주의가 일체의 기성 예배 의식을 배제 또는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교도(Puritan)들의 영향이 담긴 이 예식서는 '주일성수'+강론(설교)에만 초점이 주어졌을 뿐, 의식 그 자체는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오늘날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James H. Nichols, *Cooperate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8), pp. 90-110.

하는) ③ 구약의 말씀(한 장을 읽음) ④ 신약의 말씀 ⑤ 운물을 사용한 시편(신구약 중간에도 사용했음) ⑥ 고백과 중보의 기도 ⑦ 강론 ⑧ 기도(구속, 복음, 말씀에 대한 감사) ⑨ 주님의 기도

### 성찬 예전

⑩ 봉헌(성물을 알맞은 그릇에 가져다 드리는 것 등) ⑪ 성찬에의 초대 ⑫ 성물의 성별 ⑬ 성찬의 말씀(고전 11장) ⑭ 교훈 ⑮ 봉헌의 기도 ⑯ 성체 분할 ⑰ 분병 분간 ⑱ 성도들의 참여와 명상 ⑲ 참된 생활의 강조 ⑳ 성찬 후 기도 ㉑ 시편가 ㉒ 추복 기도

### 바. 독일, 화란 개혁파 예배 전통

1563년,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서'의 저자 자하리아스 울지누스(Zacharias Ursinus)와 카스팔 오레비아누스(Caspar Olivianus) 등이 두 사람이 신제후(選帝侯) 프리드리히 3세의 요청을 받아서 루터, 쾰빙글리, 칼뱅의 예배 양식을 혼합한 절충식 예배 식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독일 개혁파 교회에서 사용하게 된 최초의 예전이다.<sup>59)</sup>

한편, 이 예배식문이 1566년에는 신제후령의 후랑킨탈에 망명중이던 화란 난민을 위해서 번역되었고, 이것이 훗날 화란 개혁파 교회의 정식 식문이 되었다.<sup>60)</sup>

그후, 미국 동북부로 퍼진 독일 및 화란 개혁파 이민들에게 사용되었고, 그 의식의 흔적이 현재까지도 역력하게 보인다.<sup>61)</sup> 이 예배 양식의 특징은 쾰빙글리의 예배 양식에 칼뱅과 루터의 식문을 절충

59) K. S. Latourette, p.393.

60) 岸本羊一, 北村宗次, p.40.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s* 참조.

61) Franklin M. Segler, p.63.

한 점이며, 성찬이 없는 주일 예배는 쾰빙글리의 간소한 강론 예배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사. 미국 개척시대의 예배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급진적인 개혁자들의 영향은 이민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옮겨져 왔다.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그들은 종교개혁의 입장에서조차 적극적이었다.<sup>62)</sup> 그들은 청교도적 개혁 정신으로 오직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은 칼뱅주의이면서도 예배는 탈 의식적 청교도주의로서 어떤 고정된 예배 순서를 배격하였다. 또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와 부흥 운동이 고조되어 위급한 데서 건져내는 대중 진도 운동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즉 1800년 경부터 일어난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복음주의적 신학의 태동과 함께 탈 의식적 예배가 성행되었던 것이다.<sup>63)</sup>

이러한 토양에서 자란 선교사들을 통하여 퍼선교지가 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개척교회에는 우려되는 문제가 주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여금 의식의 존엄성이 경시된 복음이 예배의 토착화라는 미명하에 비기독교적 요소가 예배에 깊숙이 파고 들었고,<sup>64)</sup> 나아가서 한국 교회 교인의 예배 의식 또한 전래되어 온 신앙의 대상인 어떤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과 자리 바꿈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를 만든 것이었다.<sup>65)</sup>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당시 미국 교회의 예배 양태를 요약하면<sup>66)</sup> 다음과 같다.

62) 홍치모, "강의 노트: 미국장로교회사연구", p.3.

63) Ilion T. Jonse, *Ibid.*, p.194.

6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대한국독교서회, 1973), p.66.

65) 손봉호, 「현대 정신과 기독교적 지성」(서울:성광문화사, 1978), p.381.

66) Franklin Segler, p.63.

- ① 예배에 일정한 형식이 없었다.
- ② 의식을 거행할 안수 받은 사람의 부족으로 의식 거행이 자주 있지 않았다.
- ③ 강론이 예배의 중심에 오게 되었다.
- ④ 기도는 자발적이었으므로 혼련 받지 못한 자도 드렸다.
- ⑤ 예배 순서의 특징은 많은 찬송에 두었다. 찬송은 신지향적(神志向的)이 아닌, 지구히 대인적(對人的)이어서 감정적이며 경쾌하고 낙관적인 동시에 주관적, 개인주의적이었다.
- ⑥ 예배의 특징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즉각적으로 드리는 식이었으며, 교회의 예배 전통에는 전혀 무관심하였다.
- ⑦ 예배 장소는 평범하였고 거칠었다. 장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예배당을 의식에 맞도록 구조할 생각은 거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예배 투경은 예배의 본질적 가치가 진도 중심의 즉흥적 복음 진도 형태로 진략케 함으로써 기독교 예배 정신인 인격적 제사<sup>67)</sup>와 말씀 및 성례전<sup>68)</sup>에서 균형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 교회에서의 예배 의식은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sup>69)</sup>

이러한 예배 의식이 그대로 반성도 없이 한국 교회에 전래됨으로써 한국 개혁파 및 장로교회는 신학만 존재할 뿐, 예배와 찬송은 너무도 골절된 현상을 빚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가 너무 의식화되어 그 본질을 거의 잃었다면, 오늘날 극단적인 청교도주의 내지는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미국과 한국의 개혁파 및 장로교회는 예배에 관한

67) 롬 12 : 1

68) 행 2 : 42

69) Kenneth G. Phifer, *A Protestant Case for Liturgical Renewa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p.83.

한, 의식면을 너무 경시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전을 상실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강론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할 만큼 한 쪽으로만 기울고 말았다.<sup>70)</sup>

### 3. 한국 개혁주의 교회 예배의 현실과 분석

#### 가. 장로교회 예배의 기본 원리

장로교회 예배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정신으로 표현된 예배를 의미한다.<sup>71)</sup> 이는 곧 예배의 최고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림에 있음을 말한다.<sup>72)</sup>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기록하셨다.<sup>73)</sup> 또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일을 나타낸다”<sup>74)</sup>고 노래함으로써 전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선포하였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노래하였는데,<sup>75)</sup> 이 찬송은 초대 교회의 예배에 관한 이해의 한 단면을 밝히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예외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존재한다.<sup>76)</sup>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

70) 김동수, 「예배학 개론」(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7), p.220.

71) 박근원, “장로교의 예배 전통,” 「은곡 김소영 박사 회감 논문집」(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p.101.

72) Ibid.

73) 사 43:7; 창 1:27 참조.

74) 시 19:1

75) 엡 1:3-5

76) 사 43:21; 엡 1:12 참조.

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sup>77)</sup>이라고 가르치고 있음도 바로 이 기본 원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심계명 들비의 서문에서 그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무도 깊은 구속사적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의 경험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이 억압받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였다.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와 임재하심을 뜨겁게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종의 명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sup>78)</sup>

왜냐하면 출애굽은 속박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결음 더 나아가 바로의 이방 신을 떠나서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sup>79)</sup>

따라서 심계명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시내산 계약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미

77)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서울: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69), p. 27.

78)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은곡 김소영 박사 기념 논문집」(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0), p.24.

79) 출 3:12; 4:23; 5:3; 7:16; 8:1 참조.

베들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었다.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모두 예배에 관한 것이다.<sup>80)</sup>

제일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셨다.<sup>81)</sup>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인간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신 지향적인 행위이다.<sup>82)</sup>

제이계명은 이 세상 어떤 것이든 그것을 본 따 세진 우상을 섬겨서는 안된다고 말함으로써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나 그의 상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다만 성도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다.<sup>83)</sup> 이 점은 개혁 교회 예배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제삼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즉 예배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예배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신령과 진정(진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교훈이다.

제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물론 옛 언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한 신약의 새 언약으로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다.<sup>84)</sup>

80) 출 20:3-11; 신 5:7-15

81) 마 22:37

82) 이성재, “예배의 본질과 찬송의 역할,” 〈월간 목회〉(서울:월간 목회사, 1988, 4월호), p.117.

83) 행 17:22-31 참조.

84) 요 4:23, 26.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로라”(26절), 20:1, “안식 후 첫날

이렇듯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과 예배에 관한 계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 참다운 예배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행위다.

개혁 교회의 신학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의 빛 아래서 예배에 관한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이다.

장로교회의 예배는 이상과 같은 기본 전제 아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예배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sup>85)</sup> 즉 기독교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뜻이다. 장로교 예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부처는 예배를 어떤 창조적인 예술이나 드라마로 보지 않고 이사야서 6장 1-8절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타난 사건에서 배웠다.<sup>86)</sup>

둘째는, 예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점이다.<sup>87)</sup> 교회 시작의 역사는 인간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본다.<sup>88)</sup> 그

...” 참조.

85) 박근원, p.102.

86) 由木藤, p.112. 부처와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이사야의 고백에서 예전의 첫 모습을 발견한다. 1, 2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① ‘오르간 진주’와 ② ‘임재’ 및 ③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을, 3, 4절에서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드린다. 곧 ④ ‘영광송’, 그러나 5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고백한다. 이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을 때에 지체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다. 곧 ⑤ ‘죄의 고백’ 순서다. 그리고 6, 7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 격약된 부분(입술)에 숯불을 대고 용서를 선언한다. 즉 ⑥ ‘사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며 취소할 수 없고(렘 31:34),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용서할 자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명을 위탁하신다. ⑦ ‘헌신’이다. 또한 부처와 그의 동료들은 행 2:42에 나타난 초대 교회 예배에서 ⑧ ‘말씀의 증거’ ⑨ ‘코이노니아’ ⑩ ‘기도’의 예전 등을 진송한다.

87) 골 3:17

88) 행 2:38

리므로 두 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다.<sup>89)</sup>

기독교 예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은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한 몸에 속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 성경의 개념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표현해 준 개념이다.<sup>90)</sup>

셋째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분명한 힘은 예배가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기도가 성령의 일이고,<sup>91)</sup> 찬송이 성령의 일이며,<sup>92)</sup> 증거와 강론도, 전적으로 말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일이다.<sup>93)</sup> 따라서 기독교의 예배는 언필칭 성령의 사건이다.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영감이 주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권능이 부여되며, 성령에 의해서 정화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개혁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사건임을 강조하였다.<sup>94)</sup>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배,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

89) 마 18:20

90) 박근원, p.104.

91) 롬 8:15-17

92) 행 4:25; 엡 5:19; 골 3:16

93) 고후 12:8; 막 13:11

94) Ilon T. Jones, p.155.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에서 찬양과 드림이 바로 되고,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지며, 성례전이 바로 베풀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새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거듭 재 인식해야 한다.

### 나.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 현실

이상에서 정리해 본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신학과 역사와 전통의 조명 속에서 우리의 실상을 검토해 볼 때, 예배의 본질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 현상이 가로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특히 한국 교회에 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으며, 이 굴절된 현상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원인에 대하여 박근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sup>95)</sup>

첫째는, 근대 외국 선교 운동의 파장에서 생긴 굴절, 둘째는, 그 영향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의 체질, 그리고 셋째는, 오늘의 교회 풍토를 퇴색시켜 가고 있는 세속주의 영향으로 진단하고 있다.

개혁주의 예배는 스위스-독일-프랑스의 개혁 교회가 스코틀랜드-영국-네덜란드의 징검다리를 딛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19세기 미국 교회는 청교도적-경건주의-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교세 확장에는 목적을 가져왔으나, 장로교적 예배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즉 교회의 양적 성장에 도취되어 주일 예배도 전도집회로 탈바꿈되어 결국은 예배의 예전적 성격이 퇴색되어졌고, 찬송(시편가)은 전도가로 대체되었으며, 성만찬 역시

95) 박근원, p.112.

경시되는 반면, 인간 중심의 제목 설교로서 인간 내면의 경건만을 강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근본주의적 사고로 인해 피신교지의 문화와 가치를 일체 배제하게 되었다.<sup>96)</sup>

이러한 교회 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반대했던 목사 중심의 새로운 사제 중심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던 미국 북장로교회<sup>97)</sup>의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교회는 그들과 똑같은 재판으로 시작되었다.

이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였다.<sup>98)</sup> 그는 불과 25세의 나이로 북장로교에서 선교사로 임명받아 한국에 왔다.<sup>99)</sup> 목회 경험이란 전혀 없던 그가 관심을 가지고 행했던 일은 오로지 노방 전도였다.<sup>100)</sup>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가 중심이 되어 서울 세문안교회가 설립되고,<sup>101)</sup> 한국에서의 주일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공적 예배조차 당시의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적, 신학적 의미 부여도 없이 관행적으로 한국 신자의 수준에 맞도록 집례되었다.<sup>102)</sup> 따라서 예배는 예전(禮典)보다 전도 집회 형식을 취했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면 예배인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는 부흥회식 기질로 오늘까지 교회 안에 팽배해 오고 있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07

96) Lefferts A. Loetscher, 「세계 장로교회사」 김남식 역(서울:성광문화사, 1981), p.131.

97) R. Shearer, 「한국교회성장사」 이승의 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6), p. 40.

98) 조선출 편, 「그리스도교 대사전」(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3), p.702.

99) 「기독교공보」1989. 9. 19.

100) Ibid.

101) 박완, 「한국기독교백년」(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76), Vol. I, p.225.

102) 박창환 외 3인,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기독교사상>(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9. 2월호), p.35.

년 장로교 독노회(獨老會)가 조직되면서 독노회가 결의한 헌법에 정식으로 예배 모범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예식은 예전보다는 진도 중심적인 강론만 있는 예배 의식으로 정착, 발전되어 오는데 이르렀다.<sup>103)</sup>

예배의 본질상 내용은 ①찬양과 고백(Praise & Confession) ②기도와 봉헌(Prayer & Offering) ③성찬과 강론(Sacraments & Preaching)이다.<sup>104)</sup> 이 내용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때 참된 예배의 가치가 성취된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의 설교 중심주의적 집회 형식의 예배란 성만찬을 제외한 모든 순서가 단지 강론(설교)의 보조 역할에 불과한 불균형 상태로 기울어졌다는 뜻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하등 종교인으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다.

이는 현하 대부분의 교회 주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주보의 많은 면을 전 주일 또는 오늘의 ‘설교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고 있음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칼뱅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 요소를 단호하게 배제하는 한편, 예배에 관해서는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찬송가 양식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제네바 ‘시편가’(Genevan Psalter)이다.<sup>105)</sup> 그에 따르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찬송가집, 즉 시편뿐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찬송도 신학적 관점과 문화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겼다. 그 찬송이 19세기 미국의 부흥 운동을 통 해서 저절화되고 말았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의 대상

103) Ibid.

104) Robert G. Rayburn, 「예배학」 김달생·강귀봉 역(서울:성광문화사, 1982), pp. 38-40.

105) 原 惠, 「讃頌歌. その歴史と背景」(東京:日本基督教團出版社, 1980), p. 114.

도 하나님임이시고, 찬송가 가사와 곡의 평가 기준도 확고한데,<sup>106)</sup> 이 찬송이 인간 중심적이고 흥미 위주의 복음송(Gospel Song)으로 변질되었다.<sup>107)</sup>

더욱 한심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이 시편가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854년 언더우드가 편집 발간한 ‘찬양가’ 이후 1983년 공회찬송가가 개편 출간되기까지 수없이 떠낸 찬송가집에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용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는 찬송신학이 전무한 상태이며, 비예전적 음악들로 영적 공해 현상이 극심하다.<sup>108)</sup>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또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의식(意識) 문제이다. 이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을 통해 교육받았거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교수들을 통해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저들의 목회 정책은 초기 선교사들의 전도적 목회 영역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정용섭 교수는 “예배의식(禮拜意識)이 없는 전도 설교 위주의 예배와 감성주의 예배”<sup>109)</sup>라고 하였으며, 민경배 교수는 “성찬식을 모르고 한국 개신교회가 세워진 셈이다”<sup>110)</sup> 하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예배가 신 지향적(神志向的)이 아닌 가치 지향적 집합 행동 형태로 잘못 기울어진 자리에 대체된 것이 바로 기공할 무속 신앙과 세속주의 사조이다.

106) William J. Reynolds, 「찬송가학」, 이혜자 역(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pp.139-145.

107) 문익환, “개편 찬송가 가사의 문학적인 분석과 평가,” 〈기독교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8월호), p. 74.

108) 김의작, “회중 찬송과 성가대의 찬양은 의미가 다른 것인가,” 〈현대목회〉통권제9호(서울:현대목회, 1983), p. 98.

109) 정용섭, “그리스도교 예배신학,” 〈기독교사상〉(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8. 12월호), p.130.

110)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3), p.66.

그래서 손봉호 교수는 오늘의 한국 교회를 세속적 이태올로기의 바벨론 포로기<sup>111)</sup>라고 탄식한다. 더욱이 성결하고 순수해야 할 예배까지도 무속적이며 세속화된 것은 그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자질에 의한 예배 신학의 부재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독교 예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의 연합을 감사 감격하며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행위라고 할 때,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는 새로운 예배 갱신 운동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4.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 갱신에 관한 제언

##### 가. 예배 신학의 재정립

한국 교회 예배 신학의 변론은 심각하다. 성경주의, 보수주의, 칼뱅주의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은 체험주의, 은사 운동, 즉 신오순절주의(Neo-Pentecostalism)의 가담으로 기복적이며 혼합주의적 증증에 걸려 있다.<sup>112)</sup> 이러한 현실에서 예배 갱신은 예배 신학의 재정립으로만 가능하다.

첫째, 목회자의 신학적 갱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배 갱신의 목표는 기구나 의식(儀式)의 개혁에 있지 않고, 인간을 갱신하는 데 있다. 예배의 실제 경험 요소는 목회자, 즉 예배 인도자의 지도력과 성령의 힘과 예배자(회중) 자신 등 세 가지다.<sup>113)</sup> 따라서 인도자의 갱신이 곧 예배 갱신의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비신학적 예배의 탈피를 위하여 목회자의 신학적 재교육 운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111) 손봉호, 「나는 누구인가」(서울:샐터, 1987), p.139.

112) 류제창, 「개혁주의 예배학」(서울:성평문화사, 1985), p.105.

113) F. M. Segler, p.227.



들째, 예배 순서 및 의식의 갱신이 요청된다.

예배의 제 요소가 흩어지지 않고 유기적 통일을 유지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구현시키는 생동적인 예배 의식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찬송은 일어서서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교창(Antiphon)하는 순서를 활용하고, 틀에 박힌 순서를 생동감 있게 변화시켜 적용할 때, 공동체 의식과 예배 참여자로서의 자세가 확립될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성례전(聖禮典, Sacraments)의 집행이 요구된다. 개혁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성만찬을 예배 내용에서 삭제하거나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생으로서의 일방적인 강조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sup>114)</sup> 왜냐하면 개신교에 있어서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효력있는 은혜의 표시”이기 때문이다.<sup>115)</sup>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로교 예배에서 세례와 성만찬의 비중이 경감되거나 없어져 버린 것은 개혁 교회의 예배 전통도 아니고 또 개혁자들의 개혁 의지도 아니었다.

우선 세례에 있어서 ‘학습교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비 공부(또는 문답 공부)도 재고되어야 할 과제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접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의 여부를 전인격으로 고백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성만찬도 매주일이 아니면 최소한 월 1회 드려져야 하며, 그 횟수에 못지 않게 예배 전통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성만찬의 ‘봉사적 관점’(diaconal aspect)에서 이 예식이 말씀과 생활로 연결되도록 도모하고, 예배의 참여 의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받은 그 감사의 응답으로 마땅히 우리의 삶을 바쳐

114) Robert G. Rayburn, p.303.

115)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서울:여수론, 1991), p.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혁주의 교회 특유의 시편가(Psalter)가 한국 장로교 예배와 개인 생활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해야 한다.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시편이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승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행 찬송가는 신학과 교리가 혼재되어 있으며, 그나마 일반적인 예배 찬송이 전 558장 중 불과 20% 미만이고, 꼭 또한 거리가 '저속하여 전통적 찬송가 선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to ascribe Him Supreme Worth)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시편가를 입으로 불러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신앙 고백의 응답을 드리는 예배적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다. 따라서 예배 찬송이 준비 찬송, 무료함을 달래는 배경 음악, 강론을 돕는 보조 기능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예배 주체로서의 예배 음악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예배 음악으로서의 유일한 악기가 오르간일진대, 피아노 및 여타 악기의 배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다섯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순서는 개혁 교회 예배의 출현 때부터 중요하게 지배해 온 순서이기에 마땅히 부활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세 교회 사체주의의 재현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예배의 기본 형태였던 것이다.<sup>116)</sup> 특히 오늘날 장로교회의 예배자(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사죄의 확신과 체험이 약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기 죄를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선명치 못하고 답답하다는 반응이 전화 응답자 87명 중 59명(73%)이라는

116) Robert E. Weber, pp.153-154.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sup>117)</sup> 이러한 예배자에게 죄의 고백과 사죄의 확신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여섯째, '오늘의 위탁'의 순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는 축도 전에 세상으로 파송하는 말씀에 의한 의식이다. 오늘의 위탁은 말씀과 생활, 모이는 예배와 흠여지는 예배,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기에 꼭 필요한 순서다. 그래서 예배에서의 위탁을 '파견사'라고도 한다.

일곱째, 인간의 관심을 초점에 둔 제목 설교의 타성을 극복하고 성경 본문의 해석에 역점을 둔 성경 강해 형태가 정착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일과표'(Lectionary) 사용이 부분적으로 치우친 강론을 바로잡게 하고, 말씀과 생활의 연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수용해야 한다. 교회력에 맞춘 성경일과는 3년 단위로 되어 있고, 말씀의 영감을 고루 섭취하게 한다. 만약 성경일과표에 의하지 않는 예배일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sup>118)</sup>

- (1) 구약에 대한 강론자의 무관심 혹은 극소의 사용
- (2) 교회력과 상관 없는 성구의 선택
- (3) 성경의 의미 깊은 부분을 사용하지 않음
- (4) 구약과 신약의 상호 연관성 결여

여덟째, 예배 용어의 갱신이 예배 갱신에 이바지할 수 있다. 예컨대, 목도를 '예배에의 부름'으로, 예배 본당을 '예배한다'로,

117) 김중기 외 2인, 「한국 교회 성장과 신앙 양태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현대사회연구소, 1982), p.167.

118) 정장복, p.259.

사회자를 '인도자' 혹은 '집혜자'로, 기도를 참회의 기도, 고백의 기도, 중재의 기도 등으로, 그리고 복과 축복의 분명한 구분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더 의미있는 예배로 인도하는 의식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더욱이 강단의 종(鐘)은 불교 의식에서 유래되었고, '목도'는 일본의 신도주의(神道主義)에서 유래된 무속적 전래의 일제 잔재<sup>119)</sup>이므로 종과 목도라는 용어와 순서는 시급히 우리 예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기도(드림)의 형태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 나. 예배의 이교적 영향 갱신

첫째, 교육 목회가 정착될 때, 예배의 이교적 영향의 갱신은 가능하다.

케리그마(κηρυγμα) 없는, 부흥회에 의지하는 목회는 주정주의(主情主義)를 자극하며 현세의 기복 신앙을 유발시키고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혼합주의적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 목회는 삶과 사명을 위해 그 자체를 준비시키는 한 방법이므로<sup>120)</sup>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인적 삶을 위한 교육이야말로 타계주의 및 주정주의의 갱신은 물론 사랑을 핵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 의식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듯 교육 목회는 전체 회중의 목회이며 지역 사회로까지 향한 목회이므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예배 갱신의 방법으로 충족될 것이다.<sup>121)</sup>

둘째, 기독교 윤리를 예배에 도입할 때, 예배 갱신은 가능하다.

119) 김소영, 「예배와 생활」 p.12.

120) Lawrence O. Richards, 「教育神學과 實際」 문창수 역(서울:경경사, 1981), p.5, 서문.

121) 미국 감리교 교육부 편지, 「교육목회지침서」 오인택 역(서울:장신대학출판부, 1980), pp.45-53.

32, 33, 74, 75, 76, 77, 78, 80, 171, 216, 243, 248장)

- ⑮ 새교우 환영, 성도의 교제, 교회 소식
- ⑯ 생활, 시간, 재능 전체를 예물에 담아 드리는 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봉헌하는 동안 오르간 간주곡 또는 찬양대의 찬양.
- ⑰ 기쁨의 봉헌 찬송을 일체히 기립하여 부른다. 1, 69, 70, 244, 490, 547장

- ⑱ 봉헌의 열납을 간구. 기복적 기도 삼가
- ⑲ 교회력과 성경일과에 일치한 본문 낭독
- ⑳ 교회력에 연관된 찬양. 인간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이어야 한다.

- ㉑ 구약과 연관된 말씀 낭독. 다만, 당일의 본문을 읽을 수 있다.
- ㉒ 약 20-25분 정도로 말씀의 지배자가 아닌 봉사자의 자세로 늘의 삶에 맞도록 증거한다.

- ㉓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 ㉔ 감사 찬송: 20, 85, 90, 92, 104, 105, 106, 107, 174, 175, 176, 190, 217, 238, 239, 240, 242, 245, 246, 312, 384, 418, 435, 442, 454, 521장
- 헌신 찬송: 45, 246, 247, 267, 273, 347, 348, 365, 372, 376, 380, 431, 443, 445, 448, 450, 490, 511, 512, 517, 522, 523장

- 폐회 찬송: 59, 60, 61, 62, 437, 438, 522, 523장
- ㉕ 강론 내용대로 살도록 세상에 파견하는 순서다. 예배와 생활을 연결시키는 간단한 '파견사'가 좋다.

- ㉖ 강복 선언.
- ㉗ 축도에 대한 응답송으로 큰 아멘송이 좋다.
- ㉘ 회중이 세상으로 나갈 때까지 응당한 곡으로 연주한다.

## 5. 맺는 말

예배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경힘한 구속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하는 신령한 행위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물을 진리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깊은 신앙을 전인격적으로 표현하는 의식(儀式)이다.<sup>125)</sup>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기독교의 예배(Worship)와 삶의 봉사(Service)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한결같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sup>126)</sup>

이 말은 믿는 자의 삶은 예배적 삶이어야 하고, 예배적 삶은 윤리적으로 성숙함으로써만 선교적 역할을 가능케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관찰할 때, 예배의 갱신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갱신 운동이야말로 성경적 근거에 의한 예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기에 먼저 개혁자들의 예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예배 원리가 무엇이며, 현재 우리 한국 개혁

125) 정장복, "예배 순서의 재음미," <기독교사상>(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5, 5월호), p.216.

126) 히브리어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text{אָבָד}$  (abād)이며, 명사형은  $\text{אָבָדָה}$  (abōdāh)로서 구약에 약 120회 이상 사용된다. 본래 이 말은 노예나 고용된 종들의 노동을 의미하였으며, 그 봉사는 주인 앞에서나 지도자 또는 왕 앞에서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면서부터 제물과 예물로 드리는 종교적 봉헌, 그리고 일반적으로 태워인의 회막 봉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Paul H. Veit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Philadelphia: United Church Press, 1965), p.20.

AUTHOR 이성재

TITLE 개혁주의 교회 예배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장로교회 예배의식의 갱신에 관한 연구

IN 개혁신학

vol.8 (August, 1992): 365-406

파, 장로파 교회 예배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고 예배 갱신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한국 장로교회가 예전적 공중 예배와 신앙집회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엄격히 말해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임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강론을 들으러 가는 설교 중심적 예배, 헌금 바치고 부 받았다는 하등종교적 기복예배 의식(意識)에서 극복하여 구속사적 입장과 예전적 입장을 균형있게 재수립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로 갱신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활기 넘치는 2천년대 한국 개혁주의 교회로 성숙되어가야 하겠다. (\*)

(대학부 교수, 교회음악)

## 예수님의 Communication

안 춘 진

### 1. 序論

#### (1) 問題提起

基督敎는 본질적으로 Communication의 宗敎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基督敎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Communication 행위가 보전되고 해석되고 전수되는 현상으로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이다.<sup>1)</sup>

세계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는 발흥 초기부터 선교라는 고유 사명과 함께 복음의 전달과 확산을 위한 Communication에 지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는 基督敎가 他宗

1) Robert E. Webber, 「그리스도교 Communication」 정장복 역(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p. 8.